

중국어 “进行”과 일본어 “する”의 비교 연구

이영희*
liyingji@deu.ac.kr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3. 논항전이와 화제화 |
| 2. “进行”과 “する”구성과 격 표지 | 3.1 논항전이 |
| 2.1 “进行”과 “する”의 구성 | 3.2 화제화 |
| 2.2 “进行”과 “する”의 격 표지 | 4. 마치며 |

主題語: 경동사(light verbs), 동명사(verbal nouns), “进行” 구성(“JINXING” construction), “する” 구성(“SURU” construction), 목적격(accusative), 논항(arguments),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 화제화(topicalization)

1. 들어가며

명사와 동사의 범주를 놓고 보면 일부동사가 명사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런 동사들은 동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들이다. 이런 동태적 의미를 나타내는 명사들은 지칭성을 상실하고 서술성이 강화 되는 문법화(grammaticalization) 과정의 산물들이다. Vogel(2000)는 언어중에 일부 명사들은 술어적 특징 [+서술성]을 얻은 다음 고정된 단어형식을 취하고 그 다음 동명사 유형이 진정으로 형성되며, 명사와 동사가 분립하는 상황이 나타나야만 한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나타난 동명사는 특수형식의 동사를 동반하여 명사성으로 전환된다. 이때 사용되는 특수형식의 동사를 우리는 경동사(light verbs)라고 칭한다.¹⁾ 본 논문은 중국어 경동사 “进行”과 일본어 경동사 “する”의 비교를 통하여 두 언어의 경동사의 구성과 형태론적 특징을 살펴보려 한다. 본 논문은 먼저 경동사 개념에 대한 고찰을 진행하고, 그 다음 논항전이와 화제화에 대하여 논할 것이다.

* 동의대학교 인문사회대학 중국어학과 부교수

1) 중국어에서 형식동사라는 용어로 사용되어 왔다.

2. 경동사 “进行”과 “する”의 구성과 격 표지

경동사의 특수 현상에 대하여 범주화하거나 기능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²⁾. 중국어에는 “进行, 作(하다)”와 “给予, 加以, 给以, 予以(하다)”와 같은 동사들이 형식적으로만 술어동사이며, 의미적으로 비어 있는 동사들을 형식동사라 칭하여 왔고, 이런 형식동사들을 경동사라 다시 칭하고 있다. 최근학술연구에서 “弄(하다)”이나 “搞(하다)”와 같은 동사들도 포함시켜 연구하고 있다.³⁾ 일본어의 경동사 구성은 주로 동사 “する”와 동명사라 부르는 논항을 지닌 명사 구성에 대하여 연구하여 왔다. 본 논문은 중국어의 대표성을 띤 경동사 “进行”을 일본어 “する”와 비교하여 보려 한다.

2.1 “进行”과 “する”의 구성

중국어 “进行”과 일본어 “する”는 모두 아래의 예문과 같은 직접목적어, 즉 목적격(accusative) 를 동반한다.

- (1) a. 我们对这个问题进行了一次讨论.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한번 논의를 하였다)
- b. 两国政府将与恐怖分子进行着长期性斗争.
(두 나라정부는 테러리스트와 장기적인 투쟁을 하고 있다)
- c. 企业对客户需求进行过高度的关注.
(기업은 고객의 요구에 대하여 높은 관심을 가진적 있다)
- (2) a. 田中が 智子とはなしをした. (다나키는 도모코와 의논을 했다)
- b. 矢が 的に めいちゅうをした. (화살이 과녁에 명중을 했다)
- c. アメリカが 200年前に どくりつをした. (미국이 200년 전에 독립을 했다)

예문 (1-2)에서 “进行”과 “する”는 모두 대격목적어를 동반하였다. “进行”과 동반된 대격목적어 “讨论(논의), 斗争(투쟁), 关注(관심)”와 같은 지칭성을 나타내는 명사로 정의되었고, “す

2) 최근에 경동사연구에 일정한 참고적 가치가 있는 논문으로는 주로 논항구조이론과 관계된 것인데, Grimshaw & Mester(1988), Sells(1989), Miyagawa(1989), Tsujimura(1990), Dubinsky(1990), Terada(1990), Ahn(1990), Isoda(1991), Kageyama(1991), Uchida & Nakayama(1993).

3) 참고할 만한 연구로는 黄正德(2008), 解正明(2008), 刘亮(2015)등이 있다.

る”와 동반된 “はなし(말), めいちゅう(명중), どくりつ(독립)”은 대격목적어 표지인 “を”를 동반한 동명사이다.

뿐만 아니라 “进行”과 “する”는 동명사의 실질적인 논항도 동반하고 있다. 예문 (1a)의 “这个问题(이 문제)”는 “讨论(논의)”의 실질적인 논항이고, (1b)의 “恐怖分子(테러리스트)”는 “斗争(투쟁)”의 실질적인 논항이며, (1c)의 “客户需求(고객의 요구)”는 “关注(관심)”의 실질적인 논항이다. 예문 (2a)의 “智力(도모코)”는 “はなし(말)”의 실질적인 논항이고, (2b)의 “的(과녁)”는 “めいちゅう(명중)”의 실질적인 논항이며, (2c)의 “200年前(2백년전)”는 “どくりつ(독립)”의 실질적인 논항이다.

이와 같이 경동사 “进行”과 “する”는 대격목적어를 지정하는 속성이 있고, “进行”과 “する”는 목적어를 동반하기에 타동사 속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런 목적어는 “进行”과 “する”의 수렁자 목적어거나 행위자 목적어가 아니라는 것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경동사 “进行”과 “する”의 어휘엔트리는 Bresnan(1982)의 어휘기능문법에 의하여 아래 (3)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 (3) a. 进行, V; () <acc>
- b. する, V; () <acc>

예시 (3a-b)의 괄호는 동사논항 리스트이고, 경동사 “进行”과 “する”의 격은 비어있다. <acc>표기는 “进行”과 “する”가 대격목적어를 할당받음을 나타내지만 논항 위치를 위한 것은 아니다.4) 보다시피 (3a-b)에서의 “进行”과 “する”는 불완전한 논항구조를 가지고 있다. 논항전이의 작동(operation)은 명동사 “讨论, 斗争, 关注”와 “はなし, めいちゅう, どくりつ”에 적용된다. 이와 같은 작동(operation)은 특정조건과 함께 제약을 받는다.

- (4)

| | |
|---|---------------------------------------|
| a. 讨论(Agent, Goal, Theme) | はなし(Agent, Goal, Theme) |
| b. 进行 <acc> | する <acc> |
| c. 讨论(Theme)+ 进行(Agent, Goal) <acc> | はなし(Theme)+する (Agent, Goal) <acc> |
| d. 讨论()+ 进行 (Agent, Goal, Theme) <acc> | はなし()+ する (Agent, Goal, Theme) <acc> |

4) 이와 같은 경동사는 영어의 “do”와 흡사하다. 즉 굴절을 지니고 있지만 Θ 역할은 할당하지 않고, 선택적인 제한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do”와 다른 점은 “进行”과 “する”는 모두 타동사이기에 Θ 역할 할당을 위하여 NPs과 연결하지만 “do”는 다른 동사와 연결해야 한다.

논항의 전이과정은 “进行”과 “する”가 Θ -표지능력을 획득하는 것을 통하여 실현된다. 논리적으로 보면 두 개의 가능한 상황이 존재한다. (i) 명사가 자체의 논항을 지니는 능력을 일부 유지하는 것이고, (ii) 명사가 완전히 이런 능력을 상실하고 “进行”과 “する”가 모든 Θ -표지를 책임지는 것이다. 예시 (4a)는 논항전이의 첫 번째 가능성을 보여준다. 왜냐하면 이것은 “进行”과 “する”가 동명사 “讨论”과 “はなし”에 적용되기 때문이며, 여기에는 Agent, Goal, Theme이 포함되어 있다. (4a-b)는 논항전이에 대한 입력이고, 그 결과 (4c)처럼 같이 나타나는 한 쌍의 어휘항목으로 되었다. “讨论”과 “はなし”에는 Theme역할만 남기고, NP내면에 지정될 것이며, 타동성을 띤 동사 “进行”과 “する”는 NP 밖에 전이된 Agent와 Goal의 역할을 지정한다. 두 번째 가능성은 “进行”과 “する”가 명사의 모든 논항을 흡수하고, Θ -표지 능력이 없는 명사를 남겨둔다. 예시 (4d)처럼 이런 상황에서 모든 논항은 동사에 의하여 Θ -표지되기 때문에 목적어NP 밖에서 실현된다. 위의 이와 같은 “명사+동사”복합체는 파생적인 어휘항목에서 하나의 완전체로 나열된다). 때문에 경동사 “进行”과 “する”와 함께 나타나는 명동사들은 같은 문법적 기능과 범주를 가지고 있다.

2.2 “进行”과 “する”의 격 표지

아래의 예문을 통하여 중국어의 “进行”을 구성하는 격 표지를 볼 수 있다.

- (5) a. 我们对这个文件进行了认真的学习。(우리는 이 안건에 대하여 진지하게 학습을 하였다.)
 b. * 我们对这个文件进行了认真的学。

예문 (5)와 같이 중국어의 경동사 “进行”를 사용하는 구문에서 반드시 이음절 동명사를 동반하여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5b)와 같은 비문이 된다.

- (6) a. 我们认真地学习了这个文件。(우리는 이 안건을 열심히 학습했다)
 b. 我们认真地学了这个文件。(우리는 이 안건을 열심히 학습했다)

예문 (6a-b)에서 동사가 목적어를 동반할 때 음절의 제약을 받지 않는다. 그러나 경동사 “进行”을 사용한 예문 (5b)에서는 음절의 제약을 받는다. 여기에서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결론은

5) 중국어인 경우에는 “进行讨论, 进行斗争, 进行关注”, 일본어에서는 “はなしする, めいちゅうする, どくりつする”형식의 완전체로 사용된다.

(i) 경동사와 동반된 동명사는 반드시 이음절(disyllable)이고, (ii) 경동사가 없는 문장에서는 이런 이음절동사는 타동성을 띤 동사이다. 왜냐하면 경동사를 지닌 구문이 의미면에서 “행위자+동사+수령자”와 같은 성분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런 의미관계의 문장에서만 “进行”은 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즉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7) a. Agentive+V(monosyllable/disyllable)+Objective
- b. Agentive+[P+Objective]+进行+ Verbal Nouns(=V-disyllable)

예문 (7a)에서 단음절 혹은 이음절동사는 목적격 명사를 동반하였지만 (7b)에서 경동사의 삽입으로 인하여 전체의 위치 변동이 생긴다. 경동사 뒤에 위치한 이음절 동명사는 직접목적어 위치를 점령하고, 뒤에 위치하였던 목적격은 전치사의 인도하에 경동사 앞으로 위치이동을 하였다. (7a)에서 (7b)로의 변화는 경동사에 의한 Θ -투명도 NP는 경동사 “进行”의 밖에 위치하였고, 목표의미를 나타내는 “전치사(P-roposition)”로 마크된다.

일본어의 경동사 “する”의 구성은 아래와 같이 기술할 수 있다.

- (8) a. せいふは こうがいへ 本部の いどうを した. (정부는 교외로 본부의 이동을 했다)
- b. *せいふは こうがいへ 本部を いどうを した.

예문 (8a)에서 동사 “する”의 과거시제는 대격목적어표지를 지닌 동명사 “いどう”와 같이 나타냈다. 이와 같은 구성에서 동명사를 중심으로 하는 NP를 Θ -투명도NP(theta-transparent NP) 라고 Grimshaw & Mester(1988)는 명명하였다⁶⁾. 이런 경동사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자질은 동명사의 논항이 투명도 NP 밖에 나타나야 한다는 것이다. 예문 (8a)와 같이 “こうがいへ(교외로)”는 동명사 “いどう”를 중심으로 하는 투명 NP 밖에 나타났고, 이와 같은 위치는 경동사와 같은 논항의 격 표지에 의하여 증명된 것이다. 일본어에는 동사의 격 표지와 명사의 격 표지가 존재한다. 명사의 격 표지는 동사의 격 표지에 소유격(genitive) 표지를 포함한다. 예를 들면 전체 명사구(NPs)는 동사의 격 표지를 제외하고는 즉시 하나의 NP가 소유격 표지 “の”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바로 지배 된다⁷⁾. 목표를 나타내는 “こうがいへ(교외로)”에서는 소유격

6) 투명과 불투명은 공지시적인(co-referential) 단칭표현(singular expression)들을 대치했을 때, 그 진리함수성(truth functionality)을 유지하는 구성(construction)을 투명(transparent)하다라고 하고, 그 진리함수성을 유지 못하는 구성을 불투명(opaque)라 한다. -Grimshaw & Mester (1988)참조.

7) 일본어의 이와 같은 명사가 소유격표지 “の”를 받아들임을 통하여 지배하는 것에 관하여 Kitagawa와 Ross(1982), Saito(1983)를 참조.

표지가 없지만, 예문 (8a)에서 보여준 것처럼 이런 구절(phrase)들은 투명도 NP안에 나타나지 않는다. 비교하자면 예문 (8a)에서처럼 명사구 “本部”는 소유격 표지 “の”에 의해 표지되고, 그래서 이런 NP는 “いどう”를 중심으로 하는 NP 안에 나타난다. 그렇지 않으면 (8b)와 같은 비문으로 된다. “する”는 두 개의 목적격 표지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목표를 나타내는 구절구조위치도 부정극성구절(negative polarity phrase)인 “しか”를 통하여 확인 할 수 있다.

(9) a. こうがいへしか せいふは 本部の いどうを しなかった。

(교외 이외로 정부는 본부의 이동을 하지 않았다)

b. * せいふは こうがいへ なにを しましたか?

(Yo Matsumoto, 1996)

(9a)의 “こうがいへ”는 동명사 “いどう”의 논항이며, 동사 “する”의 논항은 아니다. 만약 이 논항이 동사 “する”의 논항이라면 설령 “なに(무엇)”로 대격표지 NP를 치환하더라도 “する”를 통하여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する”에는 어떤 논항도 있을 수 없다. 그러나 상황은 그렇지 않다. 예문 (9b)와 같은 문장은 반향의문문(echo question)를 사용하지 않으면 받아들일 수 있는 문장이 아니다. Martin(1975)는 이런 구성에서 동사의 표지를 받아들이는 명사는 동명사에만 제한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와 같은 동명사 대부분은 중국어에서 기원되었고, 이런 동명사들은 중국어와 마찬가지로 과정명사(process nouns)이고(다음장절 논항전이를 참조), 어떤 격 표지도 없는 상황에서 “する”와 함께 편입우언동사(periphrastic verbs)를 형성한다.8) “을”격 표지가 없는 “명사+する”형식은 본 논문의 논의 대상이 아니다.

3. 논항전이와 화제화

3.1 논항전이(argument transfer)

중국어의 경동사 “进行”을 이해하려면 “명사가 동사를 포함하고”있는 명동관계라는 것을

8) “명사+する”에 관한 논문은 Kageyama(1977)참조 우언법(periphrase)은 하나의 뜻을 나타내는데 둘 이상의 낱말이 결합하게 된 표현들을 가리킨다. 가령 불어의 “je partirai”에 대한 “Je vais partir”라는 표현은 미래 표현의 periphrase이다. 일본어뿐 만 아니라 한국어의 “하다”동사들도 모두 이 유형에 속한다.

이해하여야 하고, 명사와 동사는 “함께 변화하는 관계” 즉 “공변관계(共變關係)”라는 것도 이해하여야 한다. 중국어는 Vogel(2000)의 기술처럼 “명사와 동사가 분립”되어 있지 않고 있다. 즉 “명사가 동사를 포함”하고 있다. 특히 단음절 동사는 명사의 기능을 모두 가지고 있다⁹⁾. 그러나 단음절이 이음절로 합병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이음절(disyllable) 동태성명사는 동사로의 문법화 정도가 미약하며, 상대적으로 이런 동태성명사의 명사성은 대응되는 단음절 동사보다는 강하다(“学-学习” “攻-攻击 / 攻打”).¹⁰⁾ 예문 (10)를 통하여 “进行”의 서술성 강약과 “讨论”의 지칭성 강약을 볼 수 있다. 동사 “开始(시작하다), 喜欢(좋아하다), 知道(알다)”와의 비교 분석을 해 보면 더 명확히 들어난다.

| | | | | |
|------|-------------|-------------|-----------|-----------|
| (10) | 进行 | 开始 | 喜欢 | 知道 |
| a. | *进行讨论 了这个问题 | *开始讨论 了这个问题 | *喜欢讨论 着问题 | 知道讨论 了问题 |
| b. | *进行 现在讨论 | *开始 现在讨论 | 喜欢 现在讨论 | 知道 现在讨论 |
| c. | *进行讨论 问题 | 开始讨论 问题 | 喜欢讨论 问题 | 知道讨论 问题 |
| d. | 进行 问题 的讨论 | 开始 问题 的讨论 | 喜欢 问题 的讨论 | 知道 问题 的讨论 |

(10a)는 상표지 “了”와 “着” 동반을 통하여 동사“知道”와 “讨论”의 서술성을, (10b)는 시간 부사어 “现在”를 통하여 동사“喜欢”과 “知道”의 서술성을, (10c)는 목적어 “问题” 동반을 통한 “开始”와 “讨论”, “喜欢”와 “讨论”, “知道”와 “讨论”의 서술성을, (6d)는 경동사 “进行”의 서술성 획득과 “讨论”의 지칭성 획득을 나타낸다. “讨论”의 지칭성 획득은 앞에 동반된 관형어의 표지 “的”를 통하여 더 명확하게 나타난다. 위의 비교표는 경동사 “进行”은 (10a-d)로 가면서 동사의 서술성이 강함을 보여주고, “讨论”는 (10a-d)로 가면서 동사적 서술성이 명사적 지칭성으로 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처럼 중국어의 동사와 명사는 같이 변화하는 관계 즉 공변관계(共變關係)로 나타난다.

(11) a. 我们[对这个问题]进行了认真的讨论.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했다)

9) “听(듣다)”을 예로 들면 “我听课(저는 수업을 들어요)”에서는 동사술어로 서술성을 나타내고, “听很重要(듣는 것은 중요해요)”에서는 주어로 지칭성을 나타낸다. 고대중국어의 명사와 동사는 더 구분없이 사용된다.
 10) 명사화란 중국어에 존재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현대중국어의 이음절 동사는 “명사로 이동하는 과정”에 있으며, 이음절 동태성명사는 “아직 동사로 완전히 문법화 되지 않았다”. 오직 명사와 동사가 완전히 분립된 언어만이 동사의 “명사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 동사가 명사에서 완전한 분리되어 나오지 못한 중국어는 동사의 “명사화”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더 정확한 기술일 것이다. 이 문제에 대한 분석은 추후 연구에 남겨둔다.

- b. [跟困难]进行着轰轰烈烈的斗争。(힘든 일과 벅찬투쟁을 하고 있다)
 c. 上级[对案子进行过谨慎的调查]。(상급기관은 이 안전에 대하여 신중한 조사를 했다)
 d. 我们[把材料]进行了两次大整理。(우리는 파일을 크게 두 번 정리를 했다)
 e. 检察院[对大宇集团]进行了五次查封。(검찰은 대우그룹에 대하여 다섯 번 차압을 했다)

예문 (11a-e)는 목적어가 Θ -표지에 대한 기여도를 잘 볼 수 있으며, 예문이 다름에 따라서 다른 논항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예문의 논항배열은 직접목적어의 중심어명사에 의하여 변화함을 볼 수 있다. (11a-c)의 “讨论(토론)”, “斗争(투쟁)”, “调查(조사)”는 경동사 “进行”에 의하여 관형어 표지 “的”를 동반한 직접목적어의 중심어임을 나타내고, (11d-e)의 “整理(정리)”와 “查封(차압/압류)”는 경동사 “进行”에 의하여 개체수량사구를 동반한 직접목적어의 중심어임을 나타낸다. 경동사의 삽입으로 인하여 원래의 목적어 즉 동명사의 실질적인 목적어는 논항 재배열에 의하여 투명도 NP 밖에 위치하게 되었다. 즉 대상의미를 지닌 전치사 “对, 跟, 把”를 통하여 목표를 나타내는 구절로 투명도 NP 밖에 위치하게 된다.

- (12) a. (对这个问题)的一次(认真)的讨论 (이문제 대한 한번의 진지한 논의)
 b. (跟困难)的轰轰烈烈)的斗争 (힘든 일과의 벅찬 투쟁)
 c. (对案子)的谨慎)的调查 (안전에 대한 신중한 조사)
 d. (对材料)的两次)大整理 (파일에 대한 두 번의 대대적인 정리)
 e. (对大宇集团)的五次)查封 (대우그룹에 대한 다섯 번의 차압)

(12a-e)는 경동사 “进行”이 존재하지 않는 문장에서 논항들은 모두 명사화된 문장에 나타난다고 인식되며 이 논항들은 모두 NP의 내부에 위치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명사의 논항구조는 논항이 NP의 외부에 존재해도 “进行”과 함께 발생하는 논항배열을 허락한다. 명사는 분명히 자체의 최대투사밖에 Θ -역할을 배정한다. 우리는 이런 명사구(NPs)를 Θ -투명도명사구(Θ -transparent NPs)¹¹⁾로 여긴다. 예시 (11a-e)의 논항 “对这个问题”, “跟困难”, “对案子”, “把材料”, “对大宇集团”은 모두 목적어(NP)밖에 존재하며, Θ -투명도명사구이다. (11a-e)와 (12a-e)의 논항들을 비교하여 보면 (11a-e)는 동사적 혹은 문장적 시스템의 격표지 “对”, “跟”, “把” 등과 공기하고 있지만 (12a-e)와 같은 명사의 소유격 표지 “的”는 지니고

11) 범주 NP가 명사구의 내부구조를 갖지 않은 명제를 지배할 때, 특별한 규칙에 의해서 그 범주 NP에 부여되는 속성(property)을 말한다. 투명도의 속성은 투명한 명사구내의 어떤 명사구가 추출(extracted)될 수 있게 해 주는 것이다. 이 때 두 명사구 중 더 큰 명사구가 추출작동에 대해 투명하다고 한다. -Chomsky(1968:44-45), <언어학사전>

있지 않는다.

다음은 일본어의 “する”을 관찰하여 보자. 일본어에서 아래의 예시는 생산적인 구성형식을 나타내며, (13)에서 직접목적어 NP의 중심어는 마치 “田中” 와 “智子”를 Θ -표지하는 것처럼 보인다.

- (13) a. 田中は 智子と 相席をした. (다나카는 도모코와 합석을 했다)
- b. 田中は 智子と 相席した. (다나카는 도모와 합석했다)

예시 (13b)처럼 명사와 “する”의 합병 행위는 이미 일본 언어학분야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부분이며,¹²⁾ 문제는 (13a)와 같이 “する”가 왜 직접목적어 “相席”와 함께 나타나는 가이다.

- (14) a. 田中は [智子]に はなしをした. (다나카는 도모코에게 말을 했다)
- b. 田中は [Tookyoo]から しゅっぱつをした. (다나카는 도쿄에서 출발을 했다)
- c. 田中は [むらびと]に (おおかみがくると) けいこくをした.
(다나카는 마을사람들에게 이리가 온다다고 경고를 했다)

- (15) a. 田中の 智子への はなし (다나카의 도모코에게한 말)
- b. 田中の Tookyooからの しゅっぱつ (다나카의 도쿄로부터의 출발)
- c. 田中の むらびとへの (おおかみがくると)의 けいこく
(다나카의 마을사람들에게한 이리가 온다는 경고)

예문 (14)처럼 직접목적어 NP가 Θ -표지에 대한 원인제공이라는 것을 쉽게 발견할 수 있고, (14a-c)는 직접목적어에 의하여 논항배열이 생긴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여기에서도 논항배열은 직접목적어 중심어명사에 의하여 변한다. (14a)는 “はなし”에 의하여 “智子に”가 결정되고, (14b)는 “しゅっぱつ”에 의하여 “Tookyooから”가 결정되고, (14c)는 “けいこく”에 의하여 “むらびとに”가 결정된다. 그러나 “する”는 논항의 개수와 논항의 유형에 영향 주지 않는다. 예시 (15)처럼 같은 세트의 논항들은 명사화에서도 발생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고, 경동사 “する”의 존재없이, 논항들은 모두 내부적 NP에 위치함을 볼 수 있다.

명사의 논항구조는 “する”와 함께 나타난 논항배열을 허가할 뿐만 아니라 논항들이 NP의 외부에 존재한다. “はなし, しゅっぱつ, けいこく”와 같은 명사들은 Θ -역할을 자체의 가장 큰 투사 밖에 배정한 것처럼 보인다. 이와 같은 명사구를 Θ -투명도명사구로 여긴다. 예문(14)

12) Hasegawa(1979), Inoue(1976), Kageyama(1976-77; 1982), Kuroda(1965), Poser(1980)의 연구를 참고.

의 모든 논항이 NP밖에 있다는 것이 쉽게 증명된 것이다. (15a-e)의 논항과 비교해보면 (14a-e)는 문장시스템의 격표지 “に”, “から”가 있지만 명사 격표지 “の”는 없다.

중국어나 일본어의 예시들처럼 논항들은 모두 스크램블링(scrambling)를 격는다. (11a-e)에서 “对, 跟, 把”로 표기된 명사구(NP)는 “的”로 표기된 명사구 앞에 위치하면 명사화된 구절을 나타낸다. (14a-c)에서 “に”로 표기된 NP는 “を”로 표기된 NP뒤에 위치할 수 없으며, 만약 S내에서는 노멀한 문장이지만 NP내부에서 불가능한 어순을 부여한다면, 명사의 중심어는 언제나 가장 뒤에 있는 성분이다. 즉 “はなし, しゅっぱつ, けいこく”는 명사구중심어로서 가장 뒤에 위치하는 성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2 화제화(topicalization)

우리는 경동사(light verbs)라는 용어를 사용하여 Θ -투명도명사구와 공기하는 동사 “进行”과 “する”를 지칭할 수 있다. “进行”과 “する”는 오직 Θ -투명도목적어를 동반하고, 일반동사¹³⁾는 오직 Θ -불투명목적어(opaque NPs)를 동반한다¹⁴⁾. 중국어의 일반동사 “放弃(포기하다)”와 일본어의 “おすれる(잊다/잊어버리다)”를 예로 Θ -투명도와 불투명도를 보자.

- (16) a. 田中は [(智子へ)の はなし]を わすれた.
 (다나카는 [(도모코에게)한 말]을 잊어버렸다)
 b. * 田中は 智子に はなしを わすれた.
- (17) a. 我们放弃了[(对这个问题)的讨论].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포기했다)
 b. * 我们[(对这个问题]放弃了讨论.

예시 (16-17a)는 일반동사들 논항인 “智子”와 “这个问题”가 목적어내부에 존재해야 문법적인 문장이 되지만, (16-17b)처럼 “智子”는 “に”를 통하여 목적어 외부에, “这个问题”는 전치사 “对”표지를 통하여 목적어외부에 존재하기에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만약 병렬형식의 절과 같이 사용하는 이외에는 단독사용은 허용되지 않는다).

총체적으로 보면 경동사 “进行”과 “する”는 위 장절에서 기술한 것처럼 모두 Θ -투명도목적

13) 일반 동사 혹은 중동사(heavy verbs)라는 용어는 경동사(light verbs)의 반대용어로 사용된다.

14) 불투명(opaque)는 투명의 반대, 공지시적인(co-referential) 단칭표현(singular expression)들을 대치했을 때, 그 진리함수(truth functionality)를 유지하지 못하는 구성, 혹은 맥락을 불투명하다고 한다. -Quine(1960), <언어학 사전>

어를 동반하여야 한다. 그리고 일반 동사는 Θ -불투명도목적어를 동반하여야 하고, 이런 논항들은 반드시 목적어내부에 존재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외의 문법적인 속성은 Θ -투명도와 불투명도의 차이에 의하여 결정된다. Θ -불투명도명사구는 자유롭게 화제화(topicalization) 할 수 있고, Θ -투명도명사구는 화제화에 저항을 받는다.

- (18) a. 田中が [[おおかみが くと)の ほうこく]を わすれていた.
(다나카가 [이리가 온다]는 경고)를 잊어먹고 있었다)
- b. [[おおかみが くと)の ほうこく]は 田中が わすれていた.
(이리가 온다]는 경고)는 다나카가 잊어먹고 있었다)
- (19) a. 田中が [[おおかみが くと) ほうこく]を した.
(다나카가 [이리가 온다고] 경고)를 했다.
- b. * ほうこくは 田中が (おおかみが くと) した.

(18b)는 동사 “わすれる”에 의한 Θ -불투명명사구 “おおかみが くと)の ほうこく”가 표지 “は”에 의하여 화제화 된 문법적인 문장이고, (19b)는 경동사 “する”에 의한 Θ -투명도명사구 “ほうこく”가 표지 “は”에 의하여 화제화 될 수 없는 문장임을 볼 수 있다. 이와 같은 상황은 중국어에서도 관찰 할 수 있다.

- (20) a. 我们错过了(对这个问题的(认真的)讨论。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놓쳤다)
- b. (对这个问题的(认真的)讨论让我们错过了。
(이문제 대한 진지한 논의는 우리가 놓쳤다)
- (21) a. 我们[对这个问题]进行了认真的讨论。
(우리는 이 문제에 대하여 진지한 논의를 했다)
- b. * (认真的)讨论让我们对这个问题进行了。

예시 (20b)는 일반 동사 “错过((기회등)을 놓치다)”에 의한 Θ -불투명명사구 “对这个问题的认真的讨论”이 뒤에 위치한 사역표지 “让”를 통하여 화제화 된 문법적인 문장이고¹⁵⁾, (21b)는

15) 현대중국어에서 지칭성 특성을 지닌 동사나 형용사가 화제 혹은 주어의 위치에 올 때 특수한 문장유형에 만 사용된다. 아래의 예시를 보자.
 1) 讨论使我们加深了对问题的认识。(토론은 우리에게 문제에 대한 인식을 심화시켰다)
 2) 漂亮是每一个女人都愿意追求的。(아름다움은 모든 여성들이 흔쾌히 추구하는 것이다)
 3) 吹牛不好。(허풍을 떠는 것은 좋지 않다)
 예문 1)은 동명사 “认真”이 화제화될 때에는 사역표지 “使, 叫, 让”문장에만 허용되고, 예문 2)는 형명사

경동사 “进行”에 의한 Θ -투명도명사구 “认真的讨论”이 뒤에 위치한 사역표지를 통하여 화제화 될 수 없음을 나타내는 비문법적인 문장이다.

4. 마치며

위의 논의를 통하여 우리는 중국어 경동사 “进行”과 일본어 경동사 “する”는 일반타동사의 속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进行”과 “する”는 일반 타동사와 아래와 같은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도 명확히 할 수 있다. 첫째 경동사의 직접목적어는 지칭성을 띤 동명사이기에 이 동명사 목적어를 제외한 논항들은 직접목적어의 외부에 존재해야 하며, 직접목적어 내부에 존재하면 비문법적인 문장이 된다는 것, 둘째 일반 타동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경동사의 직접목적어는 화제화 될 수 없음이 증명되었다. 이는 Θ -투명도와 불투명도에 의한 차이이며, 일반 타동사와의 비교를 통하여 증명되었다. 이런 경동사 “进行”과 “する” 구성의 속성들은 중국어나 일본어에서 모두 같은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약한 언어이기에 동사의 완전한 명사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동태성 특성을 가진 명사 즉 동명사와 경동사와 함께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점이 일본어 동명사와 경동사 “する”의 관계와 다른 점이라는 것도 진일보 확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 Bresnan, Joan. 1982. “The Passive in Lexical Theory,” in the Joan Bresnan(ed.), *The Mental Representation of Grammatical Relations*, MIT Press, Cambridge, pp. 3-86.
- Grimshaw, Jane & Armin Mester 1988. “Light Verbs and Theta-marking,” *Linguistic Inquiry* 19, 205-232.
- Jo, Jung-Min, 2000, Morphosyntax of a dummy verb ‘ha-’ in Korean[J]. *Studies in Linguistic Sciences*, Vol.30. 76-1000
- Kageyama, Taro, 1977. Incorporation and Sino-Japanese Verbs. *Papers in Japanese Linguistics* 5, 117-155.
- Martin, Samuel, 1975. *A Reference Grammar of Japanese*, Yale University Press, New Haven.
- Matsumoto, Yo, 1996. A Syntactic Account of Light Verb Phenomena in Japanese. *Journal of East Asian Linguistic* 5. 107-149.
- Vegel, P. M. 2000. Grammaticalisation and par-of-speech systems [A], In P. M. Vogel & B. Comrie(eds.), *Approaches*

“漂亮”이 화제화될 때에는 “是……的”구문에만 허용되며, 예문 3)는 동사성을 띤 속어가 화제화될 때에는 형용사구 술어문에만 허용됨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동사나 형용사가 지칭성을 나타내며 화제화 될 때에는 특수한 구문에 사용되지만, 경동사 문장에는 사용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to the Typology of Word Classes[C]. Berlin & New York: Mouton, De Gruyter, 259-284

黄正德(2013)『汉语句法学』世界图书出版公司

解正明(2008)『社会语法学』中国社会科学出版社

沈家煊(2007)「汉语里的名词和动词」『语言科学』第1期

_____(2009)「我看汉语的词类」『汉藏语学报』第1期

沈家煊、张姜知(2013.)「也谈形式动词的功能」『华文教学与研究』第2期

논문투고일 : 2019년 12월 19일

심사개시일 : 2020년 01월 16일

1차 수정일 : 2020년 02월 07일

2차 수정일 : 2020년 02월 13일

게재확정일 : 2020년 02월 17일

중국어 “進行”과 일본어 “する”의 비교 연구

이영희

본 논문은 중국어 “進行”과 일본어 “する”의 비교 분석을 통하여 두 언어의 경동사 체계가 통사적으로 같은 양상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進行”과 “する”는 모두 타동사 특성을 지니고 있고, 직접목적어는 동명사로 구성된 명사중심어이고, 이 직접목적어의 실질적인 논항은 θ -투명도 명사구 밖에 위치해야 한다. 화제화를 통하여 “進行”과 “する”로 구성된 문장의 동명사로 구성된 직접목적어는 화제화될 수 없고, 일반동사로 구성된 문장의 목적어는 화제화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중국어와 일본의 경동사를 통하여 알게 된 사실은 중국어는 형태변화가 거의 없는 언어이기에 동명사가 완전한 명사화가 이루어 지는 것이 아니라 변화하는 과정에 놓여 있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A Comparative Study of Chinese “JINXING” and Japanese “する”

Lee, Young-Hee

Through a comparative analysis of “jinxing” in Chinese and “suru” in Japanese, the thesis learns that the light verb systems of the two languages have the same syntactic properties. They all have the transitive properties, and they all take the direct object with the verb as the center. This NP argument must be outside the θ -transparency NP. The direct object of a “jinxing” and “suru” sentences cannot be transformed into a topic or topicalizations, while the direct object of a heavy verbs sentence can be transformed. In addition, Chinese is a weak flection language, so verbal nouns cannot be fully nominalized, and they are in the process of nominalization.